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② 광주 무등산 원효사 느티나무

불이문 없는 절의 '불이문'



불이문(不二門)이 표제로 쓰여 있는 2022년 탁상달력을 넘겨본다. 전각이나 탑이 중심인 듯 배경인 듯 하늘이나 바다 혹은 산과 나무가 배경인 듯 중심인 듯 여럿이 아닌 듯한 한 묶음의 풍경들을 다 넘기고 나니 2023년 열두 달이 단숨에 펼쳐진다. 헛디딘 듯한 놀람을 달래려고 올해로 돌아오다 중간에 멈춘다. 무등산 정상을 넉넉하게 조망할 수 있는 광주 원효사의 여름이 싱그럽게 다가온다. 문득 검은빛 쇠문고리 옆에서 만개한 국화 꽃살문에 틈을 두고 기대어 서면, 언 마음에 훈풍이라도 진득거릴 것 같아 새벽 첫차를 타고 길을 나선다.

무등산 높이를 상징하는 1187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려 일주문으로 걸어가는데, 작은 두 개의 기둥 뒤로 큰 두 개의 기둥이 함께 지붕을 이고 있다. 둘인 듯 넷인 듯 하나인 듯 두 손 모아 한마음으로 합장하고는 통과해 겨울숲을 보니 벌거벗은 줄기와 가지들만이 가녀리게 흔들리는 바람을 무애로 벗 삼고 있는 것 같았다. 간혹 분홍빛 잃은 낙엽을 달고 있는 단풍나무가 가을이 세월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었지만, 우세한 겨울에 밀려 위축될 무렵 가을인 듯 겨울인 듯 경계의 낙엽을 여분으로 달고 있는 여러 그루의 느티나무들이 길 한복판에 서 있는 게 보였다.

350년 되었다는 느티나무에 이름이 있었다. '생각하는 나무' 인데, 그 위에는 "고운 꽃은 향기가 없듯이 잘 설해진 말도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법구경)라는 문장이 있었다. 꽃이 아름다운 색을 내고, 진한 향기를 내뿜는 몸부림은 오로지 번식을 위해 매개곤충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처절하고도 화려한 생존 전략인데, 그래서 '고운 꽃은 향기가 없듯이' 라는 말에 생각이 꼬이지만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그 깊은 지침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느티나무에 둘러쳐진 보호 울타리에 살짝 올라 빛이 스미는 나무 밑동을 보니 거기서부터 분지(分枝)로 자라는 두 그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멀리서 처음 보았을 때는 수형이 둥근 부채 같아 느티나무임을 직감했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뼈대만 남은 줄기들이 부챗살처럼 여러 갈래로 자라고 있어 시작점이 궁금했는데, 결론은 두 그루였다. 하지만 이것도 불확실한 판단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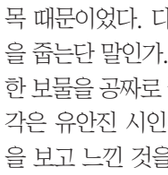
나무들을 보면, 어떤 나무는 하나의 원줄기가 삼층석탑 1층 높이에서 손가락처럼 나누어지고, 어떤 나무는 삼층석탑 3층 높이에서부터 갈라져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나무가 높은 하늘에 닿는 지점에는 끝눈이 있는데 이들이 상하게 되면 나무들은 그 옆의 곁눈에서 싹을 틔워 생장을 이어가려고 한다. 이 분투 과정에서 분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 모두가 생존 환경에 따른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빚어진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게 편할 듯하다.

지구에 동물보다 먼저 등장해 인간의 삶을 만들어낸 나무, 그래서 생명력도 강한데 그 비밀은 움직이지 못하는 대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듈(module) 구조에 있다. 즉 〈랩 걸〉에 나오는 "식물 조직의 대부분이 대체 가능하고 융통성이 있다는 사실"인데, 부분이 전체로 자랄 수 있는 식물은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둘이 아니고 하나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나무 위를 보았다. 속껍질이 황갈색이라 '누튀나무' 에서 '느티나무' 가 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그보다 눈에 번쩍 뜨인 그림은 녹지 않은 서리인 듯 눈 흔적을 움켜쥔 상고대인 듯 희끄무레한 꽃 같은 문양이 버짐처럼 퍼져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이끼류와 다른 지의류였는데, 이는 조류와 균류가 공생하면서도 하나의 개체처럼 움직이는 독특한 생물체다. 대기오염 지표 생물로 활용되기도 하는 지의류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돌난간이나 석탑에서도 자라는데, 이들이 있다는 것은 그곳 공기가 맑다는 증표이다.

6세기 초 원효대사가 무등산의 산자수려함을 사랑하여 잠시 머물러 수행하셨다는 원효사의 천왕문 역할을 하는 원효루 아래를 지나 불이문 없이 곧바로 대웅전으로 가는데 꽃살문 기억은 가뭇해지고 '화엄성중' '화엄성중' 독송만 들려온다. 그래서 가을꽃 향기를 맡지 못해 아쉽기만 한 금목서를 맴돌다 흰 밀가루를 뿌린 듯 방금 세탁한 하얀 와이셔츠를 펼친 듯 은은하게 눈부신 무등산 설경을 눈에 담다 종무소 담장 모퉁이에서 열어진 황갈색 얼룩으로 올라간 민낯의 배롱나무가 여러 그루 보여 다가간다. 이 나무도 덮인 흙을 파고 들어가면 한 줄기에서 갈라져 나왔을 법도 하지만, 추론만 할 뿐 추운 겨울 열매를 잘 매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는 여름의 붉은 열정을 고대하며 발길을 돌려 느티나무 앞에 다시 선다.

허공에서 눈사태로 쏟아지는 상념들이 이합집산으로 한 줄기에 모여 원효사에 없는 불이문이 된 건 아닐까? 긴 듯 아닌 듯. 마음 밖에서 따로 무엇을 구하는 이 우둔함 사이로 바람만이 흘러간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② 유안진의 '다보탑을 줍다'

10원짜리 동전서 보게 된 '부처 그리고 나'

다보탑을 줍다

고개 떨구고 걷다가 다보탑(多寶塔)을 주웠다
국보 20호를 줍는 횡재를 했다
석존(釋尊)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땅속에서 솟아나 찬탄했다는 다보탑을
두 발 닿은 여기가 영취산 어디인가
어깨 치고 지나간 행인 중에 석존이 계셨는가
고개를 떨구면 세상은 아무데나 불국정토가 되는가
정신차려 다시 보면 빼알간 구리동전
꺾어진 목고개로 주저앉고 싶은 때는
쓸모 있는 듯 별 쓸모없는 10원짜리
그렇게 살아왔다는가 그렇게 살아가라는가.

—〈다보탑을 줍다〉 (유안진 · 창비 · 2004)—

이 시집을 사게 된 이유는 순전히 시집(시) 제목 때문이었다. 다보탑을 줍다니, 어떻게 다보탑을 줍는단 말인가. 길거리에서 어떻게 그 크고 귀한 보물을 공짜로 줍는단 말인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유안진 시인이 경주 불국사에 가서 다보탑을 보고 느낀 것을 시로 썼으리라는 단순한 추측이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시를 읽었다. 그런데 시를 다 읽고 난 뒤 나는 나의 아둔함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다보탑은 내 주변 사방 천지에 널려 있었던 거다. 다만 내가 그 보물(10원 짜리 동전)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깔보며 함부로 살았던 것이다. 대신 5만 원 짜리 벼락 꿈을 꾸며, 다보탑(깨달음)을 찾는다고 세상에 없는 길을 휘젓고 다녔던 것이다.

'고개 떨구고 걷다가 다보탑(多寶塔)을 주웠다'. 유안진 시인은 첫 행부터 나의 아둔함을 보기 좋게 깨뜨렸다. 그리고 '국보 20호를 줍는 횡재를 했다' 는 언술로 내 오만한 물욕(物慾)의 허를 찔렀다. 아, 내 마음의 형편없음이여. 오만한 물욕이여. 탐진치(貪嗔癡)여. 삼독(三毒)이여. 나는 주눅이 들었다. 사소한 경험에 입힌 유안진 시인의 기발한 상상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 일상의 경험 곳곳에서 나도 숱한 다보탑을 만나고 줍고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던지고 살았던 것이다. 그 귀중한 국보(國寶)를, 보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 속에 담고 다니고 길거리에 흘리고 다니고 아무 데나 함부로 던지고 다녔던 것이다. 그런데 유안진 시인은 내가, 우리들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 속에 담고 다니고 흘리고 다니고 아무 데나 함부로 던지고 다닌 10원 짜리 동전 속에서 '다보탑(보물)' 을 발견하고 '주워 든 것'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실제로 10원짜리 동전 뒷면엔 다보탑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국보 20호를 줍는 횡재' 를 했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유안진 시인에게 이것은 커다란 성취이자, 자신 찾기-자아(自我) 찾기였다. 불심(佛心)으로 가득 찬 유안진 시인의 처절한 구도기(求道記)이기도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안진 시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다. 여행을 가서도 반드시 성당을 물어 찾아가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그 신심에 나는 여러 번 놀랐다. 유안진 시인은 어떤 거창하고 큰 것에서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바닥에 떨어진 10원 짜리 동전처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보물(깨달음)을 찾고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신의 '참된 모습[진아(眞我)]' 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행인들 속에 부처가 계시고, 우리가 무겁게 고개 떨구고 사는 세상이 바로 불국정토(佛國淨土)임을 확인한 것이다. 보통 수행자가 아닌 셈이다. 같은 시집에 들어 있는 또 다른 시 '내가 나의 감옥이다' 를 보면 유안진 시인이 얼마나 처절한 구도자이고 있는 듯 없는 듯, 생활 속의 치열한, 낮은 수행자인지를 알 수 있다.

'한눈팔고 사는 줄은 진즉 알았지만/ 두 눈 다 팔고 살아온 줄은 까맣게 몰랐다// 언제 어디에서 한눈을 팔았는지/ 무엇에다 두 눈 다 팔아먹었는지/ 나는 못 보고 타인들만 보였지/ 내 안은 안 보이고 내 바깥만 보였지// 눈 없는 나를 바라보는 남의 눈들 피하느라/ 나를 내 속으로 가두곤 했지// 가시껍데기로 가두고도/ 떫은 속껍질에 또 갇힌 밤송이/ 마음이 바라면 피곤체질이 거절하고/ 몸이 갈망하면 바늘편견이 시큰둥해져/ 겹겹으로 가두어져 여기까지 왔어라.' ('내가 나의 감옥이다'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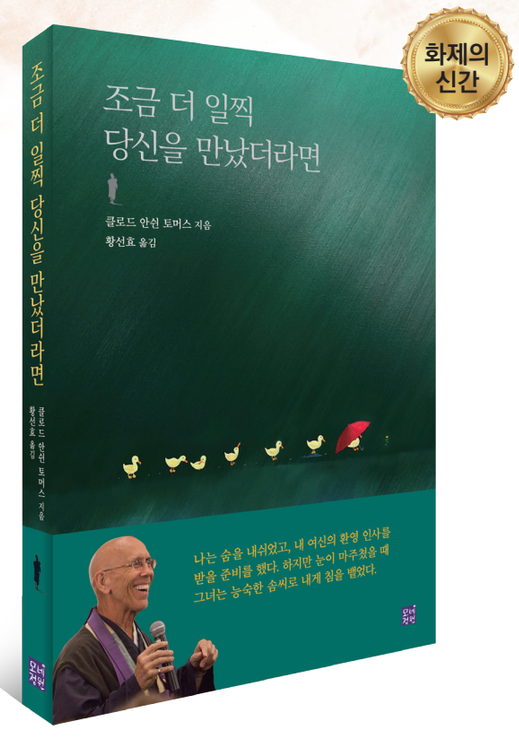
이 시 역시 처절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지켜보면서 '참 된 자기' [진아(眞我)]를 찾고 찾아가는 구도기다.

본래로 돌아가, '다보탑을 줍다' 의 진짜 묘미는 3연에 있다. '정신 차려 다시 보면 빼알간 구리동전/ 꺾어진 목고개로 주저앉고 싶은 때는/ 쓸모 있는 듯 별 쓸모없는 10원짜리/ 그렇게 살아왔다는가/ 그렇게 살아가라는가.'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10원 짜리 동전은 정말로 쓸모가 없다. 아무리 값싸고 사소한 것도 10원 짜리 동전 하나로는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은 10원짜리 동전을 잘 주워 가지 않는다. 그러나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나라 화폐단위는 1원부터 시작하지만 최소 절삭 단위가 10원이어서 현금을 거래할 경우 10원 짜리가 없으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의 최소 화폐 단위인 것이다. 유안진 시인은 그것을 보고 '쓸모 있는 듯 별 쓸모없는 10원짜리' 동전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꺾어진 목고개로 주저앉고 싶은 때') 있는 듯 없는 듯, 텅 빈 허공처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라는 것이다. 명예도 욕망도 권력도 재산도 부러워하지 말고 10원 짜리 동전처럼 '쓸모 있는 듯 쓸모 없' 이 (탐진치를 버리고) 살고, 살아가라는 것이다. 바로 붓다 정신이다.

유안진 시인의 시적 언술처럼 둘러보면 세상은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 불국정토 아닌 데가 없다. 어깨 (스)치고 지나가는 행인을 부처로 보지 못하는 것은 '내' 가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해서이다. 내 집, 내 직장, 우리 사회가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 정토(淨土)가 못 되어서이다. 10원 짜리 동전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쓸모없는 듯 쓸모 있는 듯, 낮고 낮은 자세로 '다보탑' 을 안고 살아갈 때 나도, 나를 스쳐가는 모든 행인들도 붓다가 될 것이다. 내가 속한 모든 시 · 공간도 불국정토가 될 것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